

개의 분리 불안 행동과 공격적 행동 양상 비교

신연호*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e-mail:syh-12@hj.ac.kr

A Comparative Study on the Aspect of Separation Anxiety and Aggressive Behavior in Companion Dogs

Yeun-Ho Shin*

*Dept of Pet Care, Hyejeon College.

요 약

본 논문은 반려견의 분리 불안 행동과 공격적 행동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다. 반려견들의 사회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리 불안과 공격적 문제 행동이 야기하는 민원 발생 및 인명 사고,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의 분리불안 행동과 공격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양상을 살펴 보고, 행동 특징과 요인을 비교, 파악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으며 문제 행동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개가 반려동물로서 가족들과의 좋은 유대관계가 유지되면 정상적 행동 특성, 즉 의사소통, 사회화, 섭식 및 배설, 발달 행동의 단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회화가 정착된다.

그러나 반려동물화 되면서 개는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 집 밖 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줄게 되어 보호자와의 밀착관계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며 사회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양육되는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부재로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정상적이지 못한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2017년 사회 문제가 되었던 반려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건으로 개의 공격적 문제 행동은 인명 사고나 상해로까지 이어져 동물 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정책임국 산하 과 단위 부서로 2018년 6월 6일 신설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당일부턴 그 규칙을 시행하였다[1].

이처럼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개의 분리불안과 공격적인 문제 행동은 개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으로서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에게 가장 많이 의뢰되는 상담 사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에서 발생하는 반려견들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사람과 반려동물들과의 인명 사고, 상해 등의 예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의 분리불안 행동과 공격적인 문제 행동

에 대한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행동 특징과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하게 되었다. 향후 문제 행동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개의 분리불안 행동과 공격적 행동 양상

개의 행동 양상은 여러 행동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 행동 특징은 행동의 유발 용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분리 불안과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개들은 공통적으로 사회화 시기에 적절한 보호자와의 소통 부재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정 교육이 제 때 수행되지 않을 시 빈도와 강도가 더 늘어난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관찰, 노력, 소통을 통해 반려견이 적합한 사회성을 확보해야 행복한 반려동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개의 사회화는 약 3주부터 12주 시기에 형성되며,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개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다른 개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친교, 우위성과 복종성, 장난과 사냥하는 법을 학습한다. 또한 집 안과 밖의 사람들과의 친화와 집 안의 환경을 탐색하며 적응하는 것도 익히게 된다[2].

그러나 이 사회화 시기에 정상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의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보이며 보호자와만의 유대관계를 요구하고 보호자의 부재 시 분리 불안 증세의 불안과 공포, 강박성, 파괴성, 비정상적 배설과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3].

또한 2017년 사회 문제가 되었던 ‘개물림’ 사건인 개의 공격적 문제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반려동물들, 심지어 보호자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영역 방어, 우위적, 두려움적, 포식적 공격성으로 분류된다. 분리 불안 행동과 달리 공격적 문제 행동은 인명 사고나 상해로 이어져 보호자는 즉시 행동 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정 프로그램과 적용 훈련을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개의 분리 불안과 사고나 상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적인 문제 행동의 특징과 유발 요인을 비교해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1 개의 분리 불안 행동

개가 겪는 최초의 분리 불안 경험은 모견과 동복 견과의 이별에서 겪게 되며 이후 입양 시 새로운 보호자와의 애착을 통해 혼자 남겨지게 될 때 분리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 입양한 반려견을 독립적으로 있게 하며 보호자와의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반려동물로서 분리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의 필수적 의무 사항이다.

반려견의 분리 불안 증세는 보호자와 떨어진 후 약 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 또는 안정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주기적, 혼자 있는 시간 내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오면 지나친 반가움의 표식, 식이 거부, 보호자가 잠시 떠나려는 모습만 보여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들은 자신의 분리 불안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려고 다음과 같이 씹기, 파기, 핥기, 과잉활동, 활동성의 감소, 우울, 식욕부진, 배뇨, 배변, 짖기, 자해,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핥기, 반복적 행동 등의 이상 행동 [그림 1, 2, 3, 4].을 보인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리 불안 증세는 파괴, 배뇨, 배변, 짖기, 침 흘림 등으로 이런 행동들은 보호자가 반려견과 같이 있을 때는 관찰할 수 없다.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부적절한 사회화, 나쁜 경험도 있지만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허용하는 보호자의 반려견에 대한 자세에도 있다. 즉 반려견을 혼자 있도록 하지 못하고 반려견에 대해 안타까움과 동정심, 집에서 개들이 보호자를 계속 쫓아다니도록 허용하거나, 귀가 시 개가 반가워하면 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분리 불안을 강화시키게 된다[4].

2.2 개의 공격적 행동

개가 주변 사람들과 다른 반려동물들과의 관계에서 공격적 문제 행동을 일으켜 안전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발생시킬 때 보호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며 2017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개물림’ 사건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자가 그들의 반려견 행동에 대해 의문과

관찰을 통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반려견의 사회성이 확보되지만 보호자가 사회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할 때 공격적 행동이 발생한다.

개의 공격적 문제 행동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영역방어 공격성으로 대체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의 영역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집 안과 마당, 차 안 등이 방어 영역으로 이 공격성은 공격 목표들이 도망감으로써 자기 보상을 받고, 침입자가 자신과 거리가 떨어지도록 외모 부풀리기, 털 세움과 다리를 뻗뻗하게 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짖기를 하다 직진 방향으로 돌진하여 무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위적 공격성은 서열 순위의 혼동, 상대 대상을 제압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위협적인 공격 행동을 한다. 유발 요인은 개와 상호관계에 있는 가족, 친한 사람, 또 다른 개들, 이웃 사람 등이며 우위적 공격성을 보이는 개들은 자신의 서열을 가족 내 1순위와 동등하게 놓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은 어떤 사람이나 자극에 대한 공격성인데 유전적 소인과 사회화의 부족, 좋지 않은 기억이나 경험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두려움과 관련된 공격성을 보이는 개는 복종과 두려움, 공세적 공격성의 양면적 신호를 보이기도 한다.

포식적인 공격성은 추적이나 포획, 물기, 죽이기 등은 본능적인 포식성이나 반려견으로서 강한 포식성은 보호자와 그들의 가족, 이웃, 다른 개들에게 상해와 위협을 가하여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으므로 포식적인 공격성을 유발하는 과잉 놀이나 흥분성 놀이, 먹잇감 빼앗기 등의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호자는 규칙적인 기초 복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4] [그림 5, 6, 7, 8].

그러므로 보호자들은 최초로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품고 지속적인 관찰과 문제 행동의 동기, 원인 제공 상황, 내적 유발 인자를 빠르게 파악하여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와 함께 수정요법 프로그램으로 공격적 문제 행동을 교정해야만 한다[5].

3. 결론

본 논문은 반려견의 분리 불안 행동과 공격적 행동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견들의 사회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분리 불안과 민원 발생 및 인명 사고, 상해 등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적 행동 양상을 살펴보고, 행동 특징과 요인을 비교, 파악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문제 행동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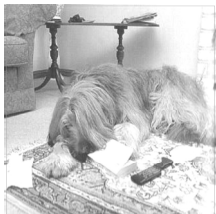
1. 반려견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행동 특성을 사

[표 1] 개의 분리 불안 행동과 공격적 행동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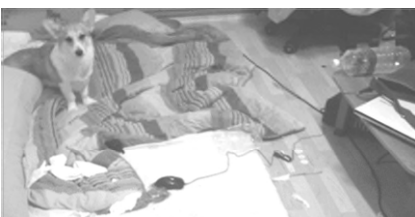
구분	행동 양상		
	행동 특징	행동 유발 요인	
분리 불안 행동	불안, 두려움, 공포	1. 구석진 곳에 웅크리기 2. 얼굴과 몸에서 나오는 불안한 반응 3. 온몸을 떨기	1. 보호자와의 접근이 제한될 시 2. 보호자의 반려견에 대한 부적절한 자세, 과잉 반응 3.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을 미리 인지할 시 4. 유전적 소인 5. 부적합한 사회화, 나쁜 경험
	짓기	1. 보호자가 나간 쪽을 향하여 지속적인 짓기 2. 인기척이나 사람 소리에 간헐적 짓기 3. 현관 앞에서 하울링	1. 보호자가 외출 시 미리 사인 주기 2. 비 사회화 3.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방치한 보호자 자세
	파괴성	1. 땅파기, 씹기, 물건 부수기, 찢기	1. 놀이의 습관화 2. 분리불안 3. 사냥이나 탐험
	비정상적 배설	1. 불안, 인지장애, 2. 흥분성, 복종, 오줌 표식	1. 훈련 부족, 분리불안 2. 표식, 과잉 복종
	활동 감소, 우울, 식욕 부진	1. 움직이지 않기 2. 음식 섭취 거부 3. 우울한 표정, 무반응	1. 흥분된 놀이 시 2. 사냥감 놀이 시 3. 동물과 어린 아이 등장 시
	강박성과 반복적 행동	1.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동일 행동의 반복, 경련, 2.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상처내기나 핥음	1. 해결되지 않는 갈등 상황, 2. 스트레스, 좌절
공격적 행동	영역 방어 공격성	1. 침입자와의 사이가 멀어지도록 신호 보내기, 2. 외모 부풀림/털 세움, 3. 다리 뻗뻗하게 세우기, 4. 귀 세우기 5. 꼬리 수직방향 쳐들기, 6. 짓기, 7. 직진 방향 돌진하기, 8. 상해하기	1. 낯선 사람의 집 안과 밖·마당 방문 시, 2. 차 안에서 외부의 낯선 사람 진입 시, 3. 출산 후 자건 보호 시 4. 수유 중 시
	우위적 공격성	1. 서열 순위 혼동에 의한 상대 대상 제압하기, 2. 상호작용을 위한 위협, 3. 1순위 보호자와 머물며 동행하기	1. 먹이와 애호 물품 사수 시, 2. 수면 중, 휴식 시 방해, 3. 목줄 착용과 처벌 시, 4. 그루밍과 트리밍 시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성	1. 두려움 보이기, 2. 복종하기, 3. 공격적 공격성, 4. 양면적 신호 보이기	1. 신체의 통증이 발생 시, 2. 낯선 사람과 타 동물과의 만남 시, 3. 자극 발생 시
	포식적 공격성	1. 강한 포식성 돌진, 2. 작은 동물이나 3. 어린 아이 상해하기	1. 흥분된 놀이 시, 2. 사냥감 놀이 시, 3. 동물과 어린 아이 등장 시



[그림1] 분리불안 (씹기, 우울, 핥기)



[그림2] 분리불안 (활동성 감소)



[그림3] 분리불안 (파괴, 배변, 배뇨)



[그림4] 분리불안 (불안과 두려움)

전에 학습하여 행동에 대한 의문과 관찰, 노력, 소통을 통해 반려견의 적합한 사회성을 확보해야 반려견과 같이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다.

2. 개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보호자들은 개의 정상적 행동 특성, 즉 의사 소통, 사회화, 사회적 행동, 모성 및 성적 행동, 씹기와 섭식, 배설, 발달 행동의 단계, 수면 행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이상적 행동인 공격성, 강박성, 파괴성, 비정상적 배설, 분리 불안과 공포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하여 즉각 교정해 주어야만 민원이나 상해, 인명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3. 반려견의 문제 행동은 사회화 시기에 적합한 사회성을 형성해야 정상적인 반려견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사회성이 결여되면 홀로 남겨지는 반려견에게는 분리 불안 행동이 나타

자료: "Why? 내 개는 왜 나쁜 행동을 할까?", Gwen Bailey, 2005년.



[그림5] 두려움적 공격성



[그림6] 우위적 공격성



[그림7] 포식적 공격성



[그림8] 영역방어 공격성

자료: "Dogs Behaving Badly",
"What Is My Dog Thinking",
Gwen Bailey, 2004년

나며,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다른 개들과 의사소통과 친교, 서열에 대한 복종성, 집 안과 밖의 사람들과의 친화와 집 안의 환경을 탐색에 적응되지 못하는 반려견들은 공격성을 갖게 된다.

이런 분리 불안과 공격적 행동은 보호자들이 빨리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와 함께 문제 행동의 유발 요인과 수정 요법을 실행하여 교정해야만 인명 사고나 상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4. 분리 불안 행동 보다 공격적 문제 행동은 개인이나 다수의 목표물에 직접적인 상해나 인명 사고까지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그들의 반려견에 대한 사회성을 형성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가족과 이웃, 다른 반려동물들에 대한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박진석,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전담 부서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중앙일보, 6월 7일, 2018년.
- [2] 신연호, "애완동물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 애견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2호, p. 777, 2월, 2014년.

- [3] Gwen Bailey, "Dogs Behaving Badly", p. 9-15, p. 55-58, 그린홈, 2005년.
- [4] 임신재, "응용동물행동학", p. 38-55, p. 55-58, (주)라이프사이언스, 2019년.
- [5] 연성찬, "반려동물행동학", p. 39-69, 도서출판애니컴, 2004년.